

선교회 소식

양상불 단원 동정

Day	Place	Volunteer
월	Bristol Manor Health 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말씀), 박송이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장병찬 집사(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 인도, 강 희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Amanda Bae 집사/Susan Lee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정종은 집사 인도, 장현경 자매 반주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Jeannie Hwang 선생/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김금화 집사, 이명옥 권사 인도, 이연옥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한자경 집사 반주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Susana Kim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문주미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우 집사 인도, 서울옥 집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김금화 집사,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최수현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문행희 집사 반주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정준임 집사 인도, 이해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김진호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Paul Dunn/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Brenda 조 집사 인도, 최수현 집사/Soo Park 선생 반주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한국 요양원 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양상불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17년 연주 일정

11월 25일(토) 7:30PM	히스페닉 사역 추수감사절 연주 First Presbyterian Church, Palisades Park Englewood
12월 02일(토) 2:00PM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Closter Tree Lighting at Closter Borough Hall Philadelphia North Central 빙민가 성탄 연주
12월 07일(목) 7:00PM	at Closter Borough Hall Philadelphia North Central 빙민가 성탄 연주
12월 09일(토) 5:00PM	11:00AM Sunrise of Old Tappan
12월 10일(일) 11:00AM	11:00AM Norwood Buckingham
12월 16일(토) 2:00PM	2:00PM Rochelle Park Bristol Manor
12월 23일(토) 2:30PM	12월 23일(토) 2:30PM Oakland

2018년 연주 일정

1월 20일(토) 2:30PM	Care One at the Cupola, Paramus
1월 21일(일) 11:00AM	Sunrise of Paramus
1월 27일(토) 2:30PM	Westwood Care One at Valley
2월 18일(일) 11:00AM	Sunrise of Cresskill
2월 24일(토) 2:00PM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View

양상불 행사 일정

12월 18일(월) 6:00PM	Christmas Party 아콜라 연합감리교회
12월 25일(월)~1월 1일(월)	Winter Break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18년 1월 05일(금) 11:00AM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 포트리 베다니 교회 430 Main St., Fort Lee, NJ
2018년 6월 16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19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편집 위원 : 정준임, 윤희주, 이수진, 송희수, 정인애



Vol. 102 / Oct. ~ Dec., 2017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December 1, 2017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성탄은 외면과 무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침묵할 수 없었던 선사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들의 외침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기쁜 날을 맞아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지 어느새 18년…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더욱 신뢰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로운 이웃들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외치며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선한 이웃 선교회의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고 또한 함께여서 늘 행복했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큰 빛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 특히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벽찬 기쁨으로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충만하고, 희망찬 새해를 은혜롭게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The first Christmas began in indifference, but the angels who could not be silent cried ou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Their cry is a great comfort to those who wait for the birth of Christ. I pray that the proclamation that was made by the angels will be continued to be witnessed by those who love Jesus.

It's been 18 years since the ministry began the mission of Good Neighbor. During that long period of time, we learned to forgive, trust, and love one another more. We served our neighbors with love and shared the gospel, proclaim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It's been an honor and privilege to serve our neighbors with all of the Good Neighbor families and I pray that God's grace, mercy, and peace will be with you in the New Year.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very Happy New Year!

Peace and joy,
Joon L.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Merry Christmas

선한 이웃 선교회 동역자로서

성 탄 선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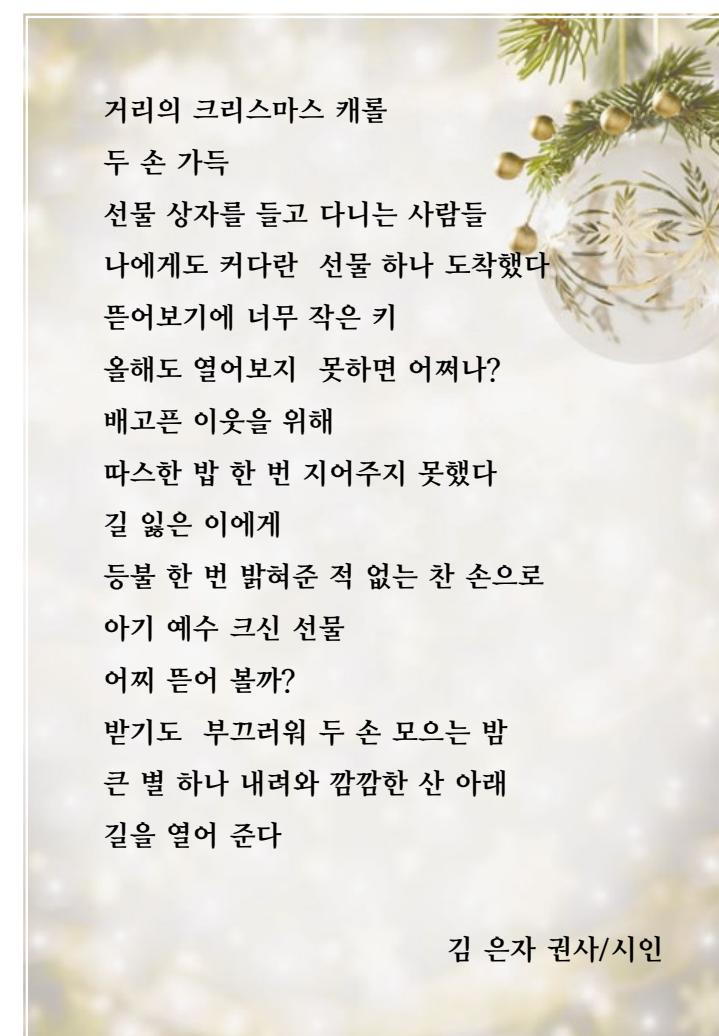
제가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로서 양로원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은 색소폰으로 양로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양로원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는 가끔 그저 마음이 내키면 남편을 따라 참석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 양로원을 인도하시는 권사님의 병환으로 인하여 한국어로 인도할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간곡한 부탁을 정준임 집사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사역인데……’ 망설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양로원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를 사역을 하면서 비로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그리고 단 한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양로원에 계신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 일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매일의 삶과 거동이 어려워 양로원에 들어오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시는 분들, 특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섬기시던 분들이 양로원에 들어온 후로 매주 출석하던 교회를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 아쉬움을 우리 선교회와 함께 드리는 찬양 예배로 달래는 어르신들이 행여 누가 볼까, 조용히 눈물을 닦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이 찬양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며 제 가슴도 뜨거움으로 가득해집니다.

우리 선교회가 나누는 사역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영혼의 기도인 찬양을 통해, 그 가사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입니다. Tenafly Rehabilitation 양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많은 분이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 중 어느 한 여자분은 항상 눈을 감고 계시지만 찬양 중간에는 손으로 지휘자처럼 손을 휘저으시며 찬양 예배를 드리십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분은 찬양대 지휘자로 교회 생활을 하셨던 분으로 찬양 예배 때면 저절로 손을 흔들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퇴보되면서 미국 교회가 담당해야 하는 미국 양로원의 복음 사역들을 우리 한인 1.5세와 2세가 주류가 되어 범 교회적으로 이 사명을 하루하루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100여 년 전에 무지하고 가난에 빠진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키신 이분들에게 진 복음의 빛을 갚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귀중하고 소중한 사역에 하나님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는 고 김명진 권사님을 통하여 선한 이웃 선교회가 양로원 사역을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5곳에 이르는 양로원 및 시설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지금은 현 회장, 정준임 집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봉사자가 각자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찬양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모두가 큰 목소리의 지도 없이도 하나님께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



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벽찬 감격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로원 사역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나눔의 축복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나누고자 시작하게 된 선한 이웃 양상불을 통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매주 양로원을 방문,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그들의 재능과 사랑의 나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생의 말년을 어린 나이에 일찍 견학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인생 공부를 가르치는 중요한 선한 이웃 선교회의 사역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 봉사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옥 권사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Buckingham at Norwood, 은혜양로원

선교회 소식

- ◆ 2017년 연말 사역은 12월 22일(금)까지 마칩니다. 한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 2018년 1월 5일(금) 11:00AM에 포트리 베다니교회에서 선한 이웃 선교회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든 봉사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430 Main St. Fort Lee, NJ)
- ◆ 2018년 새해 사역은 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차질 없도록 유념해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성탄을 맞이하여 양로원에 증정할 스카프와 모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임원진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물 구입을 도와주신 Hana Universal Trading, Inc.(모자), Lava Accessories(스카프), 정성껏 손뜨개로 무릎 덮개와 텔모자를 준비하여 주신 초대교회에게 감사 드립니다.
- ◆ 이사 임명: 선한 이웃 선교회 새 이사로 김순희 권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우리 선교회의 새 임원이 됨을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활약과 기도 후원을 기대합니다.
- ◆ YouTube Channel을 통해 선교회의 자료와 창립 기념 자선음악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Good Neighbor Ministry를 검색하시면 선교회 채널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선교회 관련 영상들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 6월에 있었던 창립 18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 ◆ 방학 때마다 찬양 사역을 도와 주는 선한 이웃 양상불 학생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선교 회원 동정

- ❖ 여행: 이문웅 장로/이명옥 권사
- ❖ 장례: 김자선 집사님 아버님께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족들께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 11월 28일 맛있는 음식으로 은혜 양로원의 환자들과 스텝을 섬겨 주신 주안 권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 ❖ 11월 24일 베건 병원 내 정신병동에서 귀한 연주를 해주신 김유식 집사님(Cello)께 감사 드립니다.
- ❖ 11월 10일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에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신 황영호 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 ❖ 선교: 정준임 집사-11/11~11/17, 아이티
박성길 전도사-10/15~11/30, 한국/미얀마, 필리핀

선교회

소식

후원해 주신 분들(2017년 9월 ~ 11월)

정구임 권사, 서연희 권사, 정준임 집사,
베다니 교회, Joy Church

수입: \$6,000.00

지출: \$12,241.85

기 도 란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새로 시작한 Brookdale Emerson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양상불 새로운 단원들과 함께 양상불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김금화,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Amanda Bae,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성길 장로 (순회 선교사), 박문화 집사 (중국 선교)

† 건강을 위한 기도

최성아 집사(녹내장), 김학영 권사(어지러움 증), 윤선구 장로 (수술 회복), 김성부 권사(수술 회복), 김진옥 집사(모친), Jeannie Hwang(부친 & 모친), 어혜숙 권사(건강 회복), 정은영 사모, 전원옥 사모, Sean Lee(건강 회복), Jane(암 투병/Nicole Oh 전도사 친구), Benny De Marco(건강), Nikki Papadopoulos (수술 회복)-Oradell,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The Important Lesson

When I first joined Good Neighbor Ensemble, I was extremely nervous. There were so many members who had much more experience in music than me and had many accomplishments that proved their impressive skill. I was not even in high school yet and this made me fear that I might not be able to play all the notes or not play in time with everyone else. I did not notice then but I gave myself a lot of pressure to try to be a perfect flutist. After all my years of devotion, I was able to improve a lot, thanks to this ensemble, but there was something else that I learned that was much more important and precious than musical skill.

One Saturday afternoon, as we ended with God Bless America, there was a woman in the audience that caught my eye. She was singing along and crying as we played. At that moment, compassion and humility had filled my heart and I too felt like I was going to cry. There were also other elderly people that were standing up during that song and I was so humbled by that act of respect. That performance taught me the true meaning of serving this community and volunteering my time and talent. My experience in going to countless of nursing homes and meeting many different people showed me the joy in making others happy and the value in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The idea that you are never too young to start making a difference will always resonate with my experience in the Good Neighbor Ensemble.

As a member, I am so thankful and blessed to be playing side by side such wonderful musicians. This ensemble shows others God's love and grace through music and I am so glad to be a part of that. I am so grateful that Good Neighbor Ensemble gave me this opportunity to experience something so unique and I give thanks God for granting me and the rest of the ensemble these talents to be able to use them for his kingdom and his glory.

Gina Chun
Good Neighbor Ensemble
Bergen County Academies/Senior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alleluia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 하리로다.”(시편146:1-2)

미국 노인 복지 흄 중에서 우리

섬기는 기쁨

저는 Wayne View에서 양로원 사역을 한지 이제 3년 반이 되어가는 강지현입니다. 몇 년간의 해외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교회에서는 래디컬 훈련이 시작되고 그 중 “나를 모르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라”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 잡으며 막연히 봉사할 곳을 찾던 중 그 당시 양로원 반주를 하시던 신양혜 집사의 권유로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양로원의 익숙지 않은 환경과 굳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속으로 오늘만 해보자 하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찬송가 반주가 시작되고 다같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의 표정이 처음과는 다르게 밝아지고 손뼉을 치며 또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번만 가보고 끝이라고 다짐했다가 그 다음주가 되니 ‘한번 더 가볼까?’하는 뭔지 모를 궁금증과 이끌림을 느꼈고 그렇게 시작된 한 주 한 주가 지금까지 제가 봉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깨끗이 옷을 차려 입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만 알고 있던 저에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더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채워주심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자유롭게 밖으로 나오실 수 없는 이분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여기에 와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진정 기뻐하실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쫓으며 생겼던 내 마음의 공허함도 여기에 와서 찬송을 힘껏 부르다 보면 성령 안에서 치유가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때때로 내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내릴 때나 자신의 상한 영을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친 자매처럼 가까워진 우리 봉사자 한 분 한 분을 이 양로원 사역을 통해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매주 주님의 얼굴이 향하고 계신 곳에 제가 함께 한다는 사실에 오늘도 발걸음을 재촉해 봅니다.

강지현 집사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View

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역」입니다.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양로원 봉사를 하며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나이 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책들도 많고 강연도 많다. 대부분 ‘늙은 말이 잘 길을 안다’는 노마 지도(老馬知途)라는 말을 들어 연륜에서 나오는 노인들의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거나 더욱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내가 봉사하는 양로원에서 만나는 노인들이 이처럼 매우 이상적인 ‘나이 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약 1년 전 ‘선한 이웃 선교회’의 양로원 봉사에 처음 참여했을 때 어떤 분은 넋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또 어떤 분은 몸이 매우 괴롭거나 혹은 몸에 이상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훨씬 어려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삶의 끝자락이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하고 두려운 느낌이 살짝 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선배 봉사자들이 노인들에게 보내주는 밝은 미소와 노래책을 넘겨주며 돋는 정성스러운 손길, 그리고 봉사를 마치고 떠나올 때마다 그들의 손을 잡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처음 가졌던 조금은 어두웠던 느낌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었다.

양로원에서 만나는 노인들의 모습이 비록 우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름진 손을 잡아주고 따스한 온기를 나누면서 비로소 ‘나이 들’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겉모습과 관계없이 누구나 충분히 사랑 받고 존중 받을 가치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되곤 한다.

어떤 이는 양로원의 노인들을 ‘불쌍한 이들’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우리는 저렇게 양로원에 맡겨지는 신세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도 하지만 나이 들과 노쇠함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고 노년의 삶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만의 선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들과 나는 결국 삶의 연장 선상에서 하나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선한 이웃 선교회’의 바탕이 되는 기독교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잠시 사용하는 ‘장막(텐트)’으로 비유하고 있고 장차 부활할 영원한 몸을 우리의 참된 ‘집’으로 정의한다.

삶이 주는 비바람을 견디며 영혼의 거처가 되어준 텐트와 같은 우리의 몸이 점점 스러져 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양로원을 찾아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이웃 선교회’의 사역은 노인들이나 우리 봉사자들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다.

다가오는 100세 시대에, 아직은 젊은 우리 봉사자들은 현재의 노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노년을 맞이하겠지만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고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오늘의 경험이 있기에 우리의 노년이 내면으로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런 뜻에서 매주 만나는 양로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아름답고, 가늠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와 함께 영원을 찬양하는, 우리에게도 역시 충분한 ‘선한 이웃’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성유진 집사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Emerson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16년간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자로서 또 대표로서 모든 봉사자들에게 선한 이웃의 참모습을 보여주셨던 사랑하는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에 도움과 축복의 손길이 되길 원하셨던 그분의 뜻을 받들어 권사님의 자제들과 함께 저희 선교회는 선한 이웃 선교회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재단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기여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축복 통로로 사용되셨던 김명신 권사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후원해 주신 분들

Joon Chung, Soon & Ester Chung, Paul Kang, Steven Kang, Ok Ja Kim, Hannah Lee, Robert W Lien, Heeju Yoon, 임미영, Kenny Yoon, 송희수, Jaebum Kim/Debora H Kim, 정구임
수입: \$3,900

총수입: \$12,650 총지출: \$9,000(장학금 수여)



Photo Gallery

